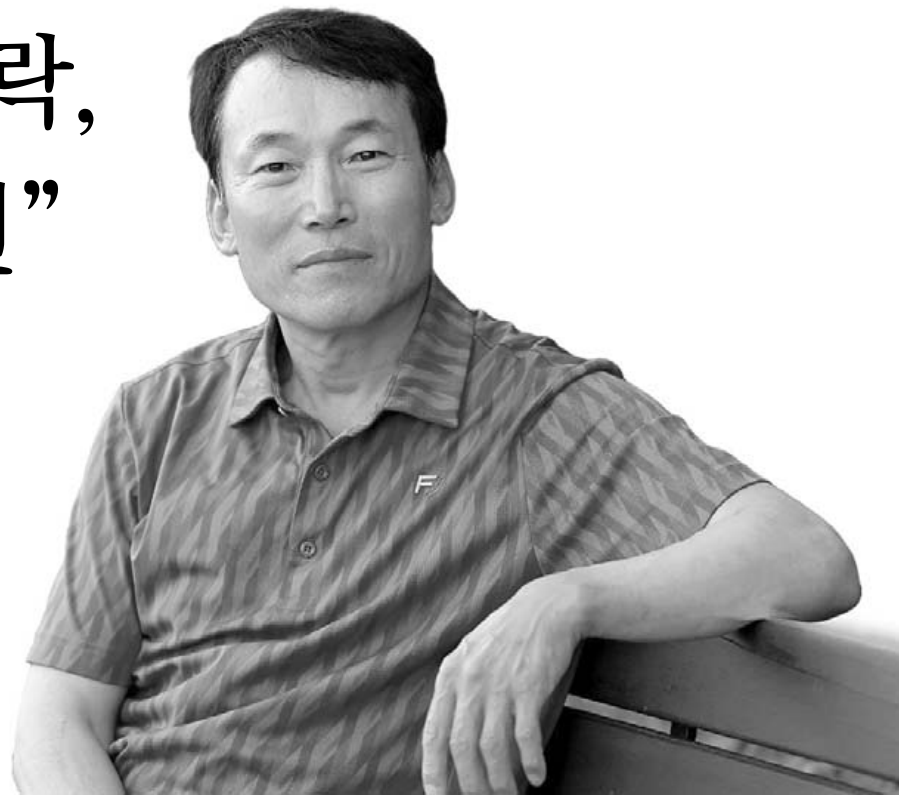


“시 안에 깃든 정신·시대 맥락, 평론 통해 알릴 수 있었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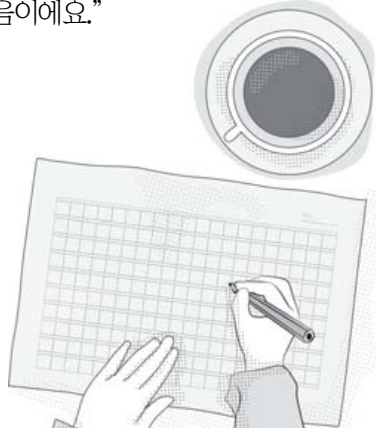
●박철영 평론가 네 번째 평론집 ‘시안’ 출간



지역 시인 29명 작품·평론 수록
지역문단 저변 확대 필요성 언급
“발굴·소개 작업 꾸준히 이어갈 것”



“평론을 할 때면 시 속에 담긴 문장, 시어 하나하나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던 걸 때면 느껴요. 삶의 여러 체험 속 비로워진 무수한 풍경들은 하나같이 소중합니다. 이러한 지역 문인들의 시가 보다 널리 알려지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박철영 문학평론가의 네 번째 평론집 ‘시안’(현대시문학)이 출간되는 길을 걷는다. 지난해 두 번째 평론집 ‘층위의 시학’, 지난해 3월 세 번째 평론집 ‘이면의 시학’을 펴낸 데 이어 지난해 출간된 이번 평론집에는 지역 시인 29명 작품에 대한 평론이 담겨있다.

시집 제목인 ‘시안’에 대해 박 평론가는 “시 안에 깃든 시인의 정신, 그 시대의 맥락까지 통찰한다는 뜻이다”며 “이는 시 속의 ‘눈’을 의미하기도 하며, 시문장들이 사람에게 어떻게 긍정적 에너지로 가 닿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라고 설명했다.

책은 ▲반향, 그리고 사유가 낳은 발화 ▲여울을 돌아온 담론 ▲이유 있는 발화 ▲시간을 관류한 언어망 4부로 구성돼 있다. 1부에는 조선의 김두래·신양옥·피귀자·김순효·진영대·임혜주, 2부 이학영·조영심·김해자·김미승·성미영·김항홍·정선희, 3부 박수

림·이민숙·오미옥·서수경·김기홍·고영서·곽인숙·김도수, 4부에는 박수원·이지담·양종화·이은유·정재영·석연경·김계식 작품에 대한 평론을 실었다.

박 평론가는 “이번 평론집에 실린 작품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며 “한 사람 한 사람 시인의 마음이 곧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정신을 부양해 온 치열함에 주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평론가는 중앙이 등한시해 온 지역문단의 저변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중앙문단이 아니면 아예 소외시켜 버리는, 이른바 문단이 꺼리꺼리 뭉쳐가는 세태는 당연한 것처럼 거리낌이 없다”며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진정한 글쓰기에 매진해오고 있는 변방의 시인들을 만나오는 일을 지속하고 있다. 알려지지 않은 지역의

수많은 문인들의 작품을 발굴하고 소개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박 평론가는 읽기 쉬운 문장과 개성적이고 특별한 문장들로 다양한 시인들의 시세계를 담아내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아직 소개하지 못한 작품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목록히 제 소임을 다하며 문학에 열중하는 시인들의 시 속 진정함에 주목해 새로운 글을 계속해서 써 내려갈 생각입니다. 평론을 통해 우리 지역 시인들이 가슴으로 품어낸 작품을 끊임없이 알리고 싶어요.”

한편 박철영 평론가는 2002년 ‘현대시문학’ 시 부문, 2016년 ‘인간과문학’ 평론으로 등단했으며 시집, 산문집, 평론집 등 다양한 저서를 출간한 바 있다. 순천작가회의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대시문학’ 부주간, 한국작가회의 회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최명진기자

새로 나온 책



▲경외심=대거 켈트너 지음, 이한나 옮김

인류 역사상 가장 분열되고 파편화된 지금, 우리에게 경외심이 간절히 필요하다. 탄생과 죽음의 순간부터 음악과 자연, 집단 열광과 역경 극복까지. 이 책은 UC버클리 심리학과 교수이자 경외심 연구의 선구자인 대거 켈트너가 20여 년에 걸쳐 밝혀낸 여덟 가지 경외의 순간을 담고 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을 지탱하는 생명력으로 경외심을 자리 잡게 할 수 있는지 현실적이고도 섬세하게 안내해준다. /워즈덤하우스·2만3천원



▲평면의 재발견=이성범, 고영성 저자

평면은 건축물의 존재 이유와 이를 위한 계획자의 의도를 고스란히 드러낸다. 건축가의 평면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가치관과 목적하는 바를 읽어볼 수 있다. 이 책은 이러한 평면의 중요성을 실제 건축물을 통해 꼼꼼하게 짚어보며 독자들이 평면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돕는다. 일상적 공간에 특별함을 더하는 설계로 주목받는 건축가 이성범·고영성을 저자로, 그들의 다채로운 평면을 쉽고 친절하게 설명한다. 실제 지어진 혹은 지어지고 있는 공간의 평면도를 세세하게 담아냄으로써 낭비 없는 최적의 공간 활용과 삶이 달라지는 평면의 힘을 보여준다. /독이어북스·3만2천원



▲파도의 아이들=정수원 저자

나쓰메 소세키, 다자이 오사무 등 일류문학 걸작들을 옮기며 신뢰받는 번역가이자 에세이스트 정수원의 첫 장편소설 ‘파도의 아이들’이 출간됐다. 이 책은 세 명의 10대 주인공 ‘실’, ‘광민’, ‘여름’이 북한의 고향을 떠나 새로운 삶을 찾기까지의 여정을 그렸다. 자기 앞에 주어진 녹색이 아닌 현실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의지대로 앞날을 선택하고자 한 세 청춘의 성장이 생생하게 펼쳐진다. 13년 동안 100여 명에 달하는 실제 탈북 청소년들을 인터뷰한 작가의 취재를 바탕으로 이들이 마주해야 했던 고난과 좌절, 이별의 경험과 그럼에도 끝내 포기할 수 없었던 절실함이 담겨 있다. /돌베개·1만4천원



▲휴가=이명예 글·그림

우리는 누구나 휴가를 기다린다. 각자 처한 상황도, 휴가를 즐기는 방법도 다르지만 휴가를 통해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기 때문이다. 하지만 손꼽아 기다리던 휴가가 시작되고, 심사숙고해 고른 휴가지에 도착한다고 해서 곧바로 즐거움이 쏟아지는 것은 아니다. 예상과 다른 휴가지에 실망할 수도 있고, 낯씨가 따라주지 않을 때도 있다. 휴가지라는 낯선 공간에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사람도 있다. 작가는 휴가지에서 몸과 마음이 서서히 이완되고, 마침내 온전히 충전되는 과정을 오로지 이미지만으로 실득력 있게 구현했다. ‘휴가’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의미인지 돌아보게 하는 작품이다. /모래밀키다리·1만6천원

‘행복과 성찰’...259편 수필로 엮어낸 삶의 여정

차영규 에세이 ‘기억하고 싶은 순간들’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2급 이사관까지, 38년 10개월 동안 몸담았던 공직에서 내려와 그간의 삶의 궤적을 훑어본 차영규의 자전적 수필집 ‘기억하고 싶은 순간들’(지식과감성#)이 출간됐다.

이 책은 공무원 출신인 저자가 신장을 이식받아 제2의 인생을 살면서 느낀 행복의 가치와 희열, 잊지 못할 삶의 편린들, 그리고 마음을 비운 뒤 얻은 성찰의 소회를 담담하게 풀어가는 자전 수필이다. 정년퇴직 후 4년 동안 단복방을 통해 친지나 지인들에게 올린 글을 모아 놓은 책이기도 하다.

그는 문학을 전공하지도, 평소 글씨를 써보지도 않은 평범한 사람이다. 단지 공무원 병(病)에 걸린 한 명의 성실한 직장자 유전적 질병으로 삶을 송두리째 포기할 상황 속 아내의 헌신과 내조에 힘입어 지금의 성공을 일궈낸 ‘불굴의 사나이’일 뿐



이다. 저자는 49세 나이에 아내의 신장을 이식받아 제2의 삶을 살게 된다. 20여 년의 투병 생활 끝에 삶의 끈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가 직장 사회에서의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생역전의 신호를 쓰기까지의 여정을 259편 수필로 엮어냈다.

책은 ▲철이 드니 보이는 행복 ▲기억하고 싶은 순간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총 3부로 구성됐다.

정년퇴직 후 찾아온 마음의 여유 덕분에 지인들과 대화도 다양해졌음을 느낀 저자는 지난 4년 간 서로의 안면을 묻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주고받는 대화 속 배려와 사

랑을 전달하는 단문의 글을 써 올리며 이번 수필집 발간을 결심하게 됐다.

저자는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고마운 직업, 공무원으로서의 지난 삶과 그간의 치열했던 날들을 돌아봤다”며 “형식도 굴레도 벗어난 글을 쓰지만 내 삶이 오롯이 담긴 글을 형식화함으로써 나를 아는 지인들과 내가 가족들, 후손들이 기억해줄길 바랄 뿐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 수필집이 보는 이들에게 세상을 관조하는 자세와 더불어 동반자적 역할까지도 충실히 수행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저자 차영규는 1977년 2월 전남 광산군 송정읍에서 토목기원보(9급)를 시작으로 2014년 광주시 교통건설국장을 역임했으며 같은 해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2015년 12월 말 광주 북구 부구청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명예퇴직했다. /최명진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구독QR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지사 061)278-0740
- 남문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평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국 944-0993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